

한\_곳에\_  
 머\_물\_고\_싶\_지\_않\_다

선완규\_휴머니스트 인문편집장

출판편집자의 세상에는 볼 것, 들을 것, 생각할 것, 그리고 알아야 할 것 등 하루에도 꽤 많은 정보와 생각거리들이 찾아온다. 순간 머리를 굴려 기획 아이템을 떠올린다. 이내 그것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쓰면 최상의 내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뭄에 콩나듯 어떤 저자와 주제가 잘 배치되어 스폰지처럼 내 안으로 한 권의 책이 '짜악' 빨려들어오고, 이내 그럴싸한 한 페이지의 기획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허공 속에서 허우적대며 커피 한 모금이 입 안으로 들어가듯, 담배 한 개비의 연기가 공기 속으로 퍼져가듯 나의 시선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런 일상의 경험에서 늘 체험하는 것은 '답답함'이다. 보편적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나의 경우를 보면 그랬던 것 같다. 아니 그랬다. 누가 보아도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책, 많은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책을 접하는 순간 '아, 정말 좋겠다' 하는 부러움과 동시에 '나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듯한 어이없는 낙담'에 빠져 우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떻게 했길래 저런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하고 게다가 마케팅까지 완벽에 가깝게 해낼 수 있었을까?

시. 간. 여. 행. 속에서 만난 편집자 K

출판편집자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다. 그 시간 여행 속에서 제법 많은 경험을 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니 제법 재미난 영상들이 스쳐지나간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놓지 않고 주의 깊게 살폈던 것 중 하나가 '저런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하고 게다가 마케팅까지 완벽에 가깝게 해내는 능력 있는 기획자'를 찾는 일이었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그에 게 사사하면 나의 고민은 그날로 '쫄'이었기에, 이 놀라운 '결핍의 파노라마.'

쑥쑥한 건 10년이라는 세월의 약을 먹은 뒤 그 고민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내 나름의 '해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무언가는 아닌데 내가 찾은 답은 '생각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럴싸하게 말하면 '결핍의 파노라마'에서 '과잉의 스펙터클'로 나의 기획 마인드를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새로운 생산물을 낳게 된다는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나를 편집자의 세계로 깊숙이 빨아들인 '엄청난' 깨달음이었다.

나는 성실한 인문서 기획자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편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훌륭한 편집자가 되고 싶다. 나의 이런 열도당토 않은 욕망은 한 명의 편집자, 한 사람의 저자, 그리고 두툼한 한 질의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 선배, 이진경, 《노마디즘》. 뛰어난 기획자, 실력 있는 저자, 장난이 아닌 책, 이 세 가지 배치는 '결핍의 파노라마'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K는—10년간 동거하고 동락한 기획자 선배, 지금도 3미터 전방에서 나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를 잘 짚고 있었던 속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텍스트 속에 정주

해 있는 나를 텍스트 밖으로 끌어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가 나에게 이식하려 했던 것은 '세심하고 사려 깊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화두였다. 텍스트와 대화하고 텍스트 밖의 또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제안했다. 편집자들이 어떤 벽에 부딪혀 답답해할 때, 그 해결의 방향을 제안하는 그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 '출판 리더십'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그가 나에게 고백할 때도 있다. 물론 술김이다.

"SUN, 나는 네가 참 부럽다."

"예! 제가 뭐 잘못된 거라도 있나요?"

"아니, 너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고 있잖아, 그게 참 부러워"

"..."

텍스트·저자와 깊이 있게 소통하려 애쓰는 모습을 높이 산 모양이다.

### 텍.스.트.속에서 만난 저자

나를 '과잉의 스펙터클'로 나아가게 한 사람이 또 하나 있다. 이진경이다. 그와는 여러 인연으로 10년간 관계를 맺어왔다. 그와 대면할 때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였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였다. 어느 날인가? 그의 '천의 고원' 강의를 들으면서 '배치'라는 개념에 흠뻑 빠져 들었다. "다양한 배치만이 있을 뿐 고정된 하나의 관계는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신체는 급속도로 해체되었다. 신체에 각인된 고정적인 시선은 어지럽게 소용돌이쳤고, 순간 새로운 장場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배치'의 개념이 나를 자유로운 텍스트와 저자 사이의 경계를 유목하게 했다. 나는 이후 그와 저자로, 때로는 선생님이로, 때로는 친구로 만나게 되었다. 유쾌한 경험이다. 《노마디즘》은 저자의 사유를 드러낸 글이지만, 이를 책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내는 데는 나의 책에 대한 사유의 흔적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에서야...

출판에서 기획은 픽션이라고 말하고 싶다. 픽션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고, 픽션이 아닌 진정한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가 픽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구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곳은 픽션이 작동하는 장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열라'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다. 내가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구성해 낼 것인가?

출판에서 편집은 책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공간으로 생각이 모여지는 것이지만,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 다양한 표현형식과 방법을 찾아나서는 모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획이라는 픽션을 내가 의도한 개념으로 현실화하는 것, 나는 이게 편집자들에게 요구되는 구성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구성의 그물망이 겹쳐지고 그 속에서 저자들, 그리고 텍스트들과 우연한 마주침이 일어날 것이다. 그 우연함 마주침이 책이라는 공간으로 저자와 독자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오늘도 다양한 배치를 즐기며 세상이라는 텍스트들을 향해 '짧은 다리'를 움직인다.

나는 K 선배에게서 받은 세심한 배려, 저자에게서 경험한 생각의 다양함 등을 다른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어, 여러 방식으로 구성해 보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볼 생각이 다. 2003년 하반기에 출판편집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